

좌윤공파 연원재(燕院齋) 성역화 사업 추진

권오신 회장, 신뢰와 섬김의 리더십 발휘 승조정신 실천



뒷쪽 위로 보이는 묘소는 고려 충목왕 때 문하시중을 지낸 좌윤공파 회경공(僉敬公, 韓諱 翁 일용-, 15세)의 묘소다. 앞줄 가운데는 권오신 회장(노란 도포)

600여 년 만의 이장. 좌윤공파(회장 권오신) 문정공(文靖公, 회정希正, 16世)과 정경부인 언양김씨 묘소의 이장(移葬) 및 평토제(平土祭)가 7월 26일 (월) 아침 6시부터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산83번지에서 산신제와 개묘(開墓) 고유제를 시작으로 이장지인 북후면 오산리 산157-1번지 일대에서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을 비롯한 권정창 고문(대종회 제례위원장), 권혁무 윤곡서원 운영위원장, 권용진 시정공 종손, 권혁조 오전서원 원장, 권영택 풍수학 교수 등 좌윤공파 족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묘백은 좌윤공파 파조(10세, 지정至正)에서부터 13세까지의 단소가 마련되어 있고, 문정공의 부친인 회경공(僉敬公, 翁 일용-, 고려 문하시중) 등의 묘소와 재실인 연원재(燕院齋)가 위치한 좌윤공파의 성지에 위치한다. 파묘(破墓) 후 리무진 장의차로 두 분의 혼백을 모시고 후손들이 뒤따르는 가운데 이장지로 이동했다. 후손들은 두 분

을 부친 묘소바로 밑 묘백에 안장한 후 초헌관에 권오신(權五信) 회장, 아헌관에 권혁정(權赫貞), 종헌관에 권오종(權五宗), 찬자 권용호(權容浩), 축 권혁근(權赫根) 등으로 각각 분정하여 평토제를 지냈다. 권오신 회장은 상주(喪主)가 되어 이 모든 이장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했다. 후손들은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후손으로서 추원보본(追遠報本)의 도리를 다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파조에서부터 13세까지의 설단 완성 및 이달 말 작공 예정인 연원재 사 건축까지 좌윤공파의 역사적인 사업은 권오신 회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권오신 회장은 족친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화합하여 협력하도록 이끌고 관계기반으로부터 수십억의 예산 협조도 얻어내는 등 성역화 사업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중이다. 겸손을 바탕으로 신

뢰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승조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는 지도력이 돋보이는 좋은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문정공은 시조 태사공에서 좌윤공(佐尹公) 파조에 이르기까지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가세를 일곱 아들과 세 딸(七子三女)을 두어서 선대(先代)까지 이어졌던 가손(家孫)의 외로움을 한꺼번에 풀어버리고 좌윤공파의 문호(門戶)를 크게 떨친 선조이다. 현재 4만 명으로 추정되는 좌윤공(佐尹公) 후손은 모두 문정공(文靖公) 칠 형제의 자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곱 아들 중 네 아들을 고려에서 어렵기로 이름난 문과급제(文科及第)로 가문(家門)을 국반(國班: 나라에서 인정한 양반 또는 양반 중의 양반)에 진입시켰는가 하면 세 딸 역시 명문가로 출가시켰다. 그중 셋째 문경공(文景公, 진헌)은 조선 세종 때 좌의정을 역임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가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후에도 대과급제와 식년시(式年試: 조선시대 3



연원재사

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된 과거) 장원급제는 물론 무과에 급제한 후손 등 현달한 후손들이 줄을 이었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만 10여 명이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는 고려와 조선 역사 1000년 동안 어느 가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사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문과에 급제하고 무려 다섯 번이나 벼슬을 제수받고도 예천 대죽리에 은거하며 살아생전 동구 밖을 나오지 않았던 고려의 절신(節臣)이자 조선의 백이숙제라고 불리어졌던 판사공(判事公, 송고松阜 초轍)이 있는가 하면, 단종 복위의 실패로 오지로 숨어버려 인제가 나오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묘자리를 잡을 때 지관이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즐비한 집안 분위기에 눌려서 풍수사가 사술을 부렸다는 등 문정공의 묘소 이장설은 지난 600여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에 권오신 회장은 회장에 취임한 이후 600여 년 동안 누적되어온 좌윤공파의 숙원사업이자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족친들의 신뢰 속에 문정공 묘소 이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평토제가 끝난 후 연원재사(燕院齋舍)에서 연원재 성역화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권오신 회장은 예산 10억을 들여 50년 내지 100년 후에 연원재사가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도록 심모원려(深謀遠慮)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배흘림기둥, 지붕, 주요 목재, 동서재, 처마선, 기조 축대, 응벽 설계 등의 기본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여러 후손들은 연원재사 건축 기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 토론했다. 14시 35분에 회의를 마치고 모두 귀가했다. 어떻게 600년 만의 이장이 예사로운 일이겠는가. 아무리 예(禮)를 숭상하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극히 보기 드문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안동권문의 좌윤공파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중근 의사 영전에...



광복절! 정말로 가슴이 저머오는 기쁨의 말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감격 속에 맞이한 '민족의 해방'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오늘 광복 76년을 맞으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치하에서의 지난 36년간의 간악무도(奸惡無道)한 저 왜놈들의 압박과 설움의 나날을 상기하면서 또 한번 치가 떨린다. 고종황제가 선포한 '대한제국'이 세계로 발돋움할 순간에 고종을 폐위하여 저놈들의 발아래 깔리고 제국주의(帝國主義)의 마수(魔手)는 마침내 1905년에 대국노 이완용을 필두로 한 '을사오적'(乙巳五賊)과 저놈들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 총감놈이 총지휘하고, 협약서에 서명을 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외무대신 박제순과 하야시 일본특명전권공사 사이에 '을사늑약'이라는 조약을 조인하였다. 이것으로 우리는 일본의 속국(屬國)이 되어 36년간의 치욕적인 노예로 전락되는 시작점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을사년의 조약을 맺는데 일조한 '을사오적(乙巳五賊)' 안에 그 당시 농상공부 대신 안동 권문(權門)의 '권중현'도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반대의견으로 맞섰으나 '이토 히로부미'의 압박으로 나중에 찬의를 표하였다. 어찌 되었건 임진왜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민족과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서 구하셨던 안동 권문의 권을 도원수의 후손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민족 앞에 두고두고 사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후손된 우리로서는 이제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에 앞장서서 나아가야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할 것이다. "개과천선(改過遷善)"이라고 하였다! 이 나라의 일백만의 안동 권문은 조상의 뿌리를 찾는 '족보(族譜)'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가문이 아닌가! 한 가문의 혈통과 뿌리를 찾는 일은 곧 이 나라의 뿌리를 찾는 애국심이기애, 그렇게 하는 것이 조상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지우고 대한의 참다운 애국민이 되는 길이라 사료된다. 이제 무너진 이 나라의 정신문화인 선조님들의 '인의예지'의 도덕과 '인류지덕'의 훈도'를 다시금 일깨워 세우는데 우리 안동 권문이 위대한 소명으로 그 책무를 감당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사료되어 진다. "을사늑약!" 그로부터 5년 후, 1910년 8월 29일에 "한일합방"

이 해가 바로 경술년(庚戌年)이라서 부르기를 경술국치(庚戌國恥)! 경술년에 우리 민족이 저 섬나라 쪽바리들에게 국권을 찬탈(篡奪)당하는 수치와, 이미 1907년에는 대한제국의 고종황제(高宗皇帝)께서 일본국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에 의하여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수치(羞恥)를 당한 것이다. 아! 정말로 원통(冤痛)하고 절통(切痛)할 일이 아니었던가! 삼천리 만도의 금수강산(錦繡江山)의 산천도 울고 동해의 푸른 물결도 울었단 그 날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반만년 전, 단군(檀君)성조(聖祖)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민족의 영산(靈山)인 백두산 신단수(神檀樹) 아래서 개국을 한 배달민족(倍達民族)이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건국이념(建國理念)을 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시는 왕검(檀君王儉)님의 뜻을 받들어 환국을 임은 것처럼, 밝게 바르고 정결하게 살아온 이 민족이 아니던가! 이 위대한 건국의 이념(理念)을 가진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한 이 나라의 오백년 조선왕조의 말미에,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노략과 도적질을 일삼던 섬나라의 왜구(倭寇)의 후손인 일본놈 중에서도 가장 악질 인간이던 '이토 히로부미'의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저놈들의 속국인 식민지(植民地)로 만들지 않았는가! 분하고 억울하기 그



지없는 민족사의 큰 비극이 아니던가! 그러나 하늘은 이를 그냥 둘 수가 없어 우리 민족의 영웅이신 안중근 열사로 하여금, 이놈 '이토 히로부미'가 이 땅과 세계에 저지른 15개 죄목을 들어 중국 땅 하얼빈 기차역에서 동아시아 식민지화의 원흉(元兇)인 '이토'의 가슴팍에 네 발의 총탄을 꽂아 넣어 황천의 불귀의 객으로 보내버린 역사(歷史)는 언제나 우리에게 통쾌한 보복(報復)이었다. 그날이 바로 1909년 10월 26일이었다! 이 위대한 민족의 영웅께서 체포되신 후에, 생을 마감하시는 순간까지 여섯 번의 재판에서도 안 열사께서는 항상 정연하고 당당한 눈썹과 깨끗한 태도로 일본인 재판장과 검찰관들을 탄복시키셨다. 관선 변호인 일본사람 '미즈노'는 안 열사의 답변에 감복하여 말하기를, "그 범죄의 동기는 오해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토'를 죽이지 않으면 한국은 독립할 수 없다는 조국에 대한 적성(赤誠)에서 나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찬사(讚辭)를 보냈다. 이 민족의 영웅께서는 여순(旅順) 감옥 차디찬 바닥에서 죽음의 그날까지 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시었고, 1910년 2월 4일, 처형 전 자신의 아우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죽거든 시체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 전에는 반장(返葬)하지 말아라! 대한독립의 외침이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르리라"고 하시었다. 정말 가

슴이 뭉클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러한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독립투쟁의 영웅들이 계셨다는 역사를 우리는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무엇인가? 비록 시대가 바뀐 지금이지만, 우리를 가슴 속에는 언제나 일제의 36간의 치욕적인 식민지 생활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불만인 소생이안 열사님의 영전(靈前)에 드립니다!

아! 안중근 의사님이시여!

저 멀리 북방의 남의 나라! 중국 땅 하얼빈역의 플랫폼! 1909년 10월 26일의 연이은 일곱 발의 총성! 그 순간! 이 민족의 원수요, 조선 침략과 수탈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선행이 낭자히 솟구친다! 아! 통한의 아픔이 단숨에 가라앉는 순간이다.

아, 열사님이시여! 본관은 순흥 안 씨. 북두칠성 태몽꿈에 아명은 '웅칠'이라 하셨지요! 하늘의 뜻이지요! 북두칠성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이 민족의 앞길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변치않고서...

조선독립 비밀결사대 그 이름 '동의 단지회'! 네 번째 손가락 끝마디를 잘라서 피로 쓴 글씨! "대한독립"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과 동양의 평화, 세계의 공존과 공영!

창공에 높이 날아오른 새가 멀리 보듯이 님은 그 시대에 세상을 바라보는 해안(解顔)의 눈으로 인류의 미래를 보셨지요! 여순 감옥 안 찬마루에서 뚝으로 써 내려간 옥중의 명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머리를 숙이게 하시오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축하합니다. 소생은 님의 본관 영주 순흥(順興)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라나서 안 씨 시조 안향 선생님의 비단(碑壇)에 분향(焚香)하며 삼배(三拜)로, 열사님을 이 땅에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여 분연(憤然)히 일어나! 적장(敵將)의 가슴팍에 시원하게 날려버린 의분(義憤)의 총탄이 저 간악무도(奸惡無道)한 왜놈들의 간담(肝膽)을 서늘게 하였으니 '대동아공영'이라는 허울 좋은 왜놈들 구실 위에 비수를 꽂으리라!

정치는 언제나 승리와고, 억울한 역사는 언제가는 빛으로 나오는 만고(萬古)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 민족의 사표(師表)되신 님이시여! 이제 그 나라로 옮겨 가신지도 여언 100년을 넘고, 10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위대한 님이시여!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한 줄기 민족혼(民族魂)을 다시금 일깨워 주소서!

대한의군 참모장장 안 중근 열사님께 삼가 드리옵니다!

안동권문 부정공파 38세 '소천' 웅만 씬. 2021년 7월 25일